

유진벨 재단의 북한결핵사업 소개

- 인요한 (John A. Linton, M.D.) -

유진벨 재단은 기독교 정신에 바탕을 둔 비영리 인도지원 기관으로 1995년 설립된 이래 지금까지 북한을 대상으로 여러 가지 인도적인, 그리고 의료적인 지원사업을 해오고 있습니다. 유진벨은 현재 진행 중인 여러사업 중에서도 특히, 지난 한세기 동안 한국에 치명적인 타격을 주었고, 현재 북한의 가장 심각한 보건 문제인 결핵의 진단과 예방 및 치료에 중점을 둔 의료지원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1960년대 후반부터 1970년대 중반까지 북한은 매우 적극적으로 결핵퇴치 사업을 벌여 전국적으로 약 80 여 개의 결핵병원과 요양소를 장기적 치료 목적으로 세웠으나, 계속된 자연재해와 경제난으로 인한 식량부족과 영양결핍으로 결핵 발병율이 높아지고 진단장비 및 치료약을 구하지 못해 수많은 환자들이 고통 받고 있습니다. 유진벨은 현재 약 60곳에 이르는 결핵기관들을 지속적으로 지원해오고 있습니다.

현재 진행 중인 유진벨의 대북지원사업의 주된 분야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결핵약을 지원합니다.

가장 기본적인 결핵치료약을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여러 가지 투여 방법이 있으나, 북한에 가장 적합하다고 여겨지는 'UN 세계 보건기구'의 권장 방법인 도즈법(DOTS : Directly Observed Treatment System)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아이나, 리팜피신, 피라진아미드, 애탐부톨 등 네 가지의 결핵약을 6~8개월동안 경구 투여하며, 종합비타민과 만성환자를 위한 스트렙토마이신을 추가하여 공급합니다.

지금까지 유진벨 도즈법으로 치료 받은 결핵 환자들의 완치율이 85-90%인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둘째, 현미경 및 시약세트를 지원합니다.

교통수단이 열악한 북한의 경우 방사선 진단처럼 대량 검진을 하기가 어렵지만, 적은 규모의 결핵관리 기관에서 저렴한 방법으로 활동성 결핵균을 가진 환자를 검출하는 좋은 방법으로 현미경과 객담 도말이 가능한 염색 시약, 도말 유리, 객담통 등 염색시약 세트 일체를 보급합니다. 하루에 25개의 객담 검사가 가능한데, 정확한 진단으로 환자를 초기에 발견해 내고 값비싼 약품의 낭비를 막기 위한 목적으로 지금까지 약 250대의 현미경과 시약 세트를 지원했습니다.

셋째, X-ray 기계와 필름을 지원합니다.

병의 조기발견, 진단 및 경과확인을 위해 유지, 보수비용이 저렴하고 꼭 필요한 기능만을 최적으로 조합하여 북한실정에 적합하게 만든 '홍부촬영용 x-선 진단기구' 세트를 지원하며, x-ray 기계 외 부속품과 필름 등이 함께 공급됩니다.

넷째, 이동 X-ray 검진차를 지원합니다.

대중교통수단의 미발달과 전기공급이 불충분한 북한실정에 경제적인 대량검진과 비상시 진료가 이루어지는 다목적용 이동병원 역할을 합니다. 차량은 중형화물차의 크기로 첨단 X-ray 기계가 차량 내부에 설치되어 있고, 40,000장의 X-ray를 찍을 수 있는 필름과 자재들이 함께 적재됩니다. 각 차량 내부에 자기 발전기, 암실, 특대 연료 탱크가 있어 일주일씩 외부로 나가 작업할 수 있으며 하루에 700명 ~ 1,000명까지 촬영이 가능합니다. 본래 북한의 결핵진료체계는 전 주민을 검진차로 대량 검진하도록 되어 있으나 30년이 넘게 노후된 차량으로는 검진이 불가능하며, 교통수단의 미비로 요양소에 오기 힘든 환자의 진료와 x-ray 기계가 있어도 전기사정으로 가동이 어려운 요양소에서 대부분의 진단이 이루어지는 사실상의 병원 역할을 합니다.

다섯째, 농업자립키트를 지원합니다.

각 결핵병원 및 요양소의 텃밭에 환자들의 영양보충을 위한 기본 온실세트 설치와 경작에 필요한 농기구, 씨앗, 종자, 씨감자, 비료, 경운기세트 등을 지원합니다. 결핵은 환자들의 영양상태가 질병치유에 영향을 미치므로 자급자족할 수 있는 최소한의 물품을 지원합니다.

여섯째, 기타 의약품 및 의료장비를 지원합니다.

유진벨에서는 북한의료당국과 긴밀한 협조 하에 결핵 및 기타 결핵과 무관한 질병의 치료와 수술에 필요한 각종 장비와 수술기구, 의료물질 등을 지원하며, 지금까지 전기 수술기구, 약물자동주입기, 인젝션 건, 심장혈관기구, 치과관련 재료 및 소모품 등 8곳의 병원에 수술실 개선에 필요한 의약품 및 장비세트를 지원하였습니다.

그 외 지원물품의 운반이나 지역별 물품분배시 이동 교통수단으로 쓰이는 차량을 지원하며 필요한 기초 유지부속품이 함께 공급됩니다. 그 밖에도 북한 병원의 의료장비 공급, 의사들 연수 등 '특별의료 프로그램'과 결핵병원과 요양소에 필요한 기본물품을 모아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자매결연 사업인 '파트너 패키지 프로그램'도 있습니다.

현재까지 유진벨은 결핵약 및 의료장비 등 약 250 여 억원 상당의 지원물품을 전달하였지만 아직도 시작에 불과합니다. 경제난에 더해 병마와도 싸워야 하는 열악한 환경에 놓여있는 북한 주민들을 돕고, 민족의 동질성을 회복하는 차원에서도 지원은 계속 되어져야 합니다. 유진벨에서는 현재 진행중인 프로그램을 더욱 효과적으로 만들기 위해 계속 노력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유진벨을 통해 도움의 손길을 뻗치고자 하는 많은 분들의 손발이 되어 그들의 사랑을 전달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유진벨은 이 모든 사업을 실시함에 있어 기증자의 의도를 중시하며, 그들의 마음을 수혜자인 북한 주민들에게 직접 전달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사회 각 분야의 평범한 사람들의 사랑과 희생이 물 흐르듯 스며들어 분단된 조국의 허리를 잇는 중요한 역할을 담당할 수 있다고 믿으며, 앞으로도 모든 활동을 통해서 화해를 통한 평화도모를 계속적으로 추진해 나아갈 것입니다.